



휘경자이 디센시아

GS건설

나무·물소리 가득... 단지 내서 사계절 한눈에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84㎡ 중소형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닿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 거리에 있고 중랑천이 인접해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자작나무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에서는 이어진 철길을 따라 걸으며 안개분수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이 피었다. 함께 조성된 '수생비오톱'은 깨끗한 물에서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었다. 환경 친화적 단지로 '전환경단지대상' 선정의 이유로 꼽혔다.

대왕 참나무와 휴게데크가 맞이하는 '오크가든', 나무와 물소리가 배경이 되는 '리빙 가든', 테라스 아래 드넓은 전경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가든',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보더 가든'에서는 조용한 물소리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아크로 베스티뉴

DL이앤씨

'기하학적 공간'·'가든 스퀘어'... 예술 품은 단지

DL이앤씨가 시공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타입별로는 60㎡, 86A㎡, 87B㎡, 103B㎡, 114㎡로 구성돼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만큼 회사는 커튼월 록과 저층부 석재 적용으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높였다. 메인 도로와 인접한 일부 주동에는 측면 수직 조명을 적용해 단지 상징성도 부각했다.

단지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기하학적 공간'이 보인다. 산, 물, 대지와 같은 자연의 유기적 형상을 재해석했다. 직선과 곡율, 공간의 풍경을 나누고 재조합해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테마조경대상' 선정의 배경이 됐다. 김용관 작가의 '대청행렬' 조각상들도 단지의 정갈함을 나타낸다. 여러 모듈을 무작위로 쌓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패턴을 규칙으로 삼아 다시 쌓기를 반복해 만들었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어우러진 '가든 스퀘어'가 조성돼 있다. 넓게 펼쳐진 잔디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정돈된 식재와 석재 디딤 공간이 배치돼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든 스퀘어 한쪽에는 입주민 전용 '가든 컬렉션 카페'가 마련돼 있어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더한다. 자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외부로부터의 단절감과 단지 내부의 개방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소다.

/안상미 기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대우건설

에베레스트·무드셀라 조형물로 완성한 특화 조경

대우건설이 시공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들어선 단지다.

트레센츠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13개 동, 총 796가구 규모며, 파인베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총 770가구 규모다.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84㎡, 105㎡로 이뤄져 있다.

맞이정원은 만남의 장이 되는 공간으로 이웃간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곳이다. 윈터가든에서는 겨울 철에도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숲속놀이터는 숲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공간이다. 육생비오톱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나비와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들꽃과 나무를 심고 새집과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단지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석가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름은 '비원'으로 '되다'라는 뜻의 비(be)와 둥글다는 뜻의 한자 '원(圓)'의 합성어다. 푸른 조형물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늘을 향해 솟은 이 조형물은 끝없는 도전과 발전을 상징하며 입주민들이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스마트환경대상' 선정의 배경이 됐다.

붉은 조형물 무드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무드셀라'에서 영감을 받았다. 4850년의 생명을 이어온 나무로 입주민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상미 기자

